

초록번호 22-2

제 목	국 문	한 도시지역의 보건소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		
	영 문	A Survey on the Cognition of Activities in a Urban Health Center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박향*, 백낙주*, 안현옥, 이철갑, 류소연, 박종, 김기순, 김양옥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H Park*, NJ Bak, HO Ahn, CG Lee, SY Ryu, J Park, KS Kim, YO Kim Su-Gu Health Center, KwangJu* Dept. of Prev Med,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박 향	
발표 형식	연제발표	발표 시간	15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b>1. 연구 목적</b></p> <p>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제2차 지역보건의료계획(1999~2002년)을 작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및 보건의료인들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이들의 보건소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에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적 협조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p> <p><b>2. 연구 방법</b></p> <p>조사대상자는 구청 산하 공무원 234명, 보건의료인이 173명이었으며, 공무원은 구청정책 결정권자인 국장 및 과장급이 9%, 실무 책임자인 계장급이 20%이었으며, 보건의료인은 의사 42%, 약사 26%, 치과의사 18%, 한의사 7%, 기타 7%이었다.</p> <p>조사내용은 보건소 사업의 주대상, 보건소 사업의 문제점 및 보건소 사업의 우선순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인지 여부를 묻는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p>				

### 3. 연구결과

1) 공무원이나 보건의료인이나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정책순위는 10가지 중 6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다.

2) 보건소의 보건사업 주대상자를 보건의료인은 영세민, 결핵환자나 성병과 같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취급하지 않는 환자를 주대상으로 해야한다고 70.9%가 생각하는 반면구청 공무원은 58%가 일반주민이나 노인을 주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3) 보건사업 평가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인이나 공무원이나 모두가 보건소가 담당해야 할 주요 기능을 환자진료 기능에 두고 있으며, 그 주대상 범위를 영세민 등 취약계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 전체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도 차이로 보였다.

4) 보건사업 내용중 우선순위를 보건의료인은 방역사업, 보건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보건기획,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 장애인재활사업 순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구청공무원은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방역사업, 일반진료,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전염병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5)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16.4%, 보건의료인의 14.2%만이 알고 있었다.

### 4. 고찰

지역내 보건의료인이나 구청 공무원들은 지역보건법에서 요구되어지는 보건소의 새로운 역할 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보건의료인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보건소의 임무를 이전까지 보건소에서 행해왔던 전염병관리나 환자진료 중심으로 밖에 인정하지 않는 한, 보건소가 지역자치체의 보건관련 문제에 대한 기획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하기까지에는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